

책천자(册賤者)는 부천자(父賤者)

정호승

시인

사람에게 책이 없으면 돈이 없는 것과 같다. 돈이 없으면 배가 고파도 밥을 먹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이 없으면 마음의 배가 고파도 그 배고픔을 달랠 길이 없다. 나는 육체의 배고픔은 그런대로 견딜 수 있어도 마음의 배고픔은 견딜 수가 없다. 무엇이든지 읽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지 못한다.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는 것이 인간인 것처럼, 때가 되면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 또한 인간이다.

나는 주로 퇴근길에 동네 서점에 들러 책을 사는 편이다. 신문에 난 신간안내를 보고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책은 신문을 올려놓거나 따로 종이마다 메모해 놓았다가 산다. 혹시 내가 구하는 책이 없으면 책방주인한테 주문하면 어김없이 갖다놓는다. 새로 산 신간 몇 권을 집어넣어 가방의 배가 불룩해지면 왠지 나는 기분이 좋아진다. 어린 시절, 뜻밖에 엄마한테 맛있는 과자를 얻어먹었을 때와 같은 심정이라고나 할까. 새로 산 책이 들어 묵적해진 가방을 들었을 때의 그 포만감, 그 포만감은 나를 기쁘게 한다.

책방에 갈 때마다 나는 늘 마음 속으로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다. 공진석, 광화문 '공씨책방'의 주인. 20대 초반에 거리의 덩핑 책장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헌책방 주인이 된 사람. 그는 우리나라 고서의 메카인 청계천에서 '청계천 공박사'라고 불렸던 사람이다. 85년에 청계천에 있는 헌책방을 광화문으로 옮겨 '공씨책방'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자칭 '헌 교보문고', '광화문 개미굴'이라고 칭하곤 했다.

그는 어디 좋은 책이 나왔다는 연락이 오자 급히 그곳에 다녀오다가 그만 먼 길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것도 책 두 묶음을 양손에 든 채 시내버스 안에서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켜서. 다음날 각 일간신문에서 '우리나라 헌책방의 대부', '한국 고서의 산 증인', '책사랑 30년 외길 한평생' 등의 제목으로 그의 죽음을 알려 그를 아끼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해주었다.

30여년전 동대문구 회기동 동사무소 옆에서 '대학서점'을 할 때부터 만난 그는 청계천 시절을 지나 광화문 시절에 이르기까지 나에게에는 참으로 소중한 책의 스승이었다. 구하기 어려운 책을 그에게 부탁해서 구함으로써 자신의 전공분야를 더 깊고 더 넓게 천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어디나 한사람뿐이었으리라는 그는 언제나 책을 사랑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기를 좋아했다.

공선생은 언젠가 내게 "책을 내도 헌책방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책을 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생명이 긴 책이라야 헌책방에 꽃힐 수 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헌책방의 서가에 꽃힐 수 있는 책이야말로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호승씨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헌책방에 꽃혀 있을 정도의 책이 아니면 아예 내지를 마십시오."

나는 아직 그의 이 말을 잊어본 적이 없다. 책을 내더라도 생명이 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을 내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언제나 나 자신을 반성하게 한다. 그는 책 위에 걸터앉거나 물건을 올려놓는 사람을 아주 싫어했다. 한번은 책방에서 책을 고르다가 들고 있던 가방이 무거워 책 위에 올려놓았다가 공선생 생각이 나서 얼른 가방을 든 적이 있다. "책천자(册賤者)는 부천자(父賤者)", 평소애 늘 하던 공선생이 이 말이 생각나서 가슴이 뜨끔했기 때문이다. ❖

- 초점 2 '문화전쟁터' 방블케 하는 서점 서비스
수도권 중대형서점마다 도서배달·각종 할인 혜택 경쟁
- 기획취재 4 대학가 불법복제물로 몸살 앓는 출판계
전공·교양서적 등 광범하게 자행... 법적 규제대책 시급
- 현장취재 6 출판미학을 창조하는 디자이너들
표지·본문·광고까지 도맡아... 종합적 시각과 인재양성 요구돼
- 베스트셀러 다시보기 7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지 못하는 18가지 이유>를 읽고 - 장상환
- 특집 기획 8 "우리 출판사 호자 시리즈물"
술/학고재/아카데미서적/보리/대원사/
시공사/두산동아/당대/한길사/새물결/
현암사/다섯수레/문학과학지성사
- 출판취재 14 역사의 산등성이에서 조망한 과학문명
- 15 '작은 행복찾기' 책들로 사회불안 잊을까
- 16 불황 이겨나갈 마케팅 관련서
- 주제가 있는 책읽기 18 동서문화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문화공존 - 김성곤
오리엔탈리즘과 다문화주의
- 책갈피 산책 19 이덕희 <불멸의 지휘자 토스카니니>를 읽고 - 민만기
- 독서 파일 20 "이 곳을 견디기 위해 다른 곳을 꿈꾼다" - 강철주
- 인터넷 출판향해 21 영국의 인터넷 서점 '인터넷 북숍' - 권재우
- 책이 있는 풍경을 찾아서 22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북 페스티벌'
- 자료 23 '97 문체부 추천도서 목록
- 컬러 화보 24 종이의 탄생과 약속, 그리고 미래
전주 '한솔 종이박물관'의 이모저모
- 서평 26 김동식 엮음 <로티와 철학과 과학> 외 - 정해창
하버마스 <담론윤리의 해명> - 정호근
27 뫼비 <세 위계> - 최갑수
28 이영미 <마당극·리얼리즘·민족극> - 이상일
에트필드 <환경윤리학의 제문제> - 양명수
- 이 책 그 사람 30 <어머니의 세월> 펄먼 윤주영씨
<김소영의 영화리뷰> 펄먼 김소영씨
31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레즈비언> 펄먼 변정수씨
32 새책 속으로 / 36 새로 나온 책
48 책의 문화유산 ㉔